

02 특집 1_ 생명의 말씀

말씀을 이룬 제단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보장하는 권능으로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교회.

04 특집 2_ 권능의 사역

기사와 표적, 재창조의 권능

성경 상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신앙생활 하는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소개한다.

06 특집 3_ 열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개국 10주년을 맞은 GCN 방송,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이스라엘 선교 현황을 전하는 힐릭 바르 크네셋(국회) 부의장.

08 특집 4_ 믿음으로 걸어온 길

사랑으로 이뤄온 믿음의 행군

본격적으로 펼쳐질 제3도약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지난 33년의 발자취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다.

만민뉴스

제707호 2015년 10월 11일(창립 특집호)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전 세계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다

만민중앙교회 창립 33주년 맞아

전 세계 1만여 지·협력교회와 함께 만민중앙교회는 GCN 방송, 다국어 책자와 신문,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MIS(만민국제신학교) 등 전 세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역사를 활발히 전파하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성전 시대에 준비된 영적 장수들과 함께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며, 대성전을 이뤄 삼위일체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오신 만민의 33년 역사를 회고해 본다(1, 8면).

제3도약기 (2010~)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합 2:14)

마지막 때 섭리를 위한 자원이 준비되다

2010

년 10월, 에스

도니아 연합성회를 통

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

에 맞서 주의 복음으로 세계를 이루기 위

한 인적, 물질, 영적 자원을 준비케 하셨다.

먼저 인적 자원인 성도들을 영적 장수로 이끄시기 위해 그해

성탄절인 12월 25일, 성도들이 지난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온전한 믿음의 차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이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목자의 눈물과 희생,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11년 5월에는 성도들의 휴대폰 카메라에 형형색색의 오로라 빛을 활영케 해 주심으로 영의 공

간에서 나오는 근본 하나님의 빛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또한 '기관장 교육'과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을 통해 2011년에는 믿음의 반석에 이르지 못하는 아홉 가지 비진리를, 2012년에는 세분화된 영의 단계를, 2013

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영'의 믿음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속에 성도들이 신속한 영적 성장을 이루는 동안 목자는 이를 위한 공의를 꾸준히 채워왔다. 근본의 소리가 발해진 2013년 초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또다시 그 사랑을 확인하며 더욱 변화의 힘을 받아 2014년 3월,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룬 성도들로 '영의 평준화'를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성도들이 참여하는 만민 하계수련회를 통해 놀라운 기사와 표적, 하나님 권능의 역사(관련기사 4, 5면)를 체험케 하시며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느낌으로 변화와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2015년 '온 영'의 흐름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룰 영적 장수로 이끌고 계신다.

이제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으로 교계 및 전 세계를 깨우며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만민의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앞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펼쳐질 제3도약기, 만민의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만민의 이름으로 펼쳐질 끝없는 영광

하루하루의 날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쌓여 왔으므로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큼이며

아버지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축복이 쌓여 있음이니이다.

지금의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 제단에 주실 엄청난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지내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하는 이들을 변화시키셨고

이제 변화시킬 이 많은 영혼들에게 미치리니

아버지의 권능은 한이 없으시리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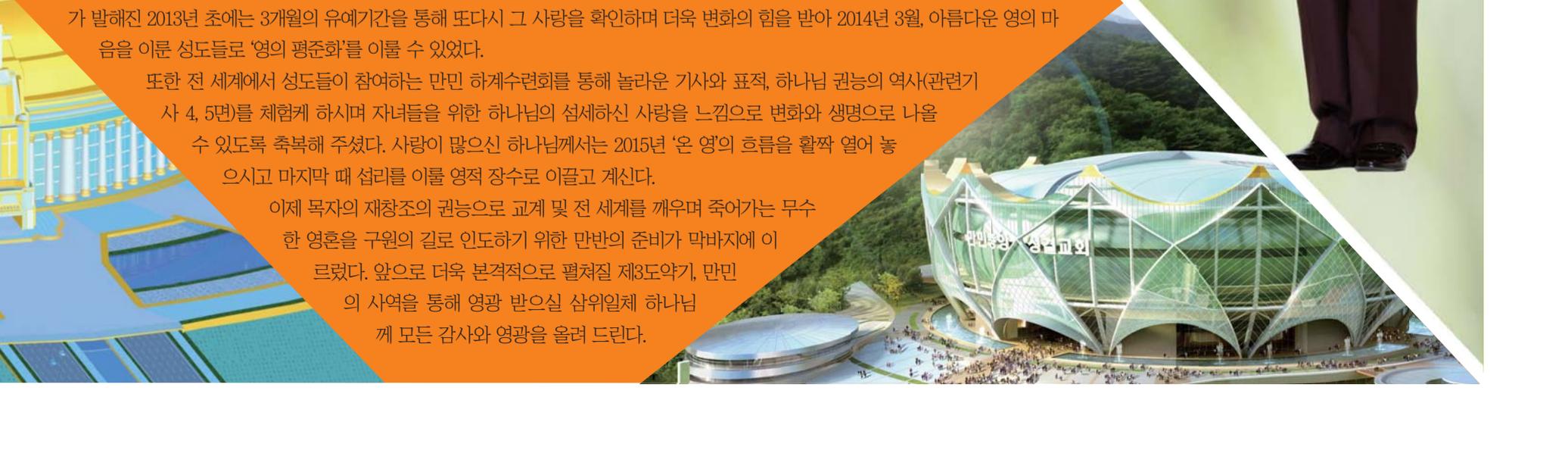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만민에게 보이심이며 영혼들에게

보이심이니 기대하나이다.

사랑하는 만민의 이름으로

펼쳐질 끝없는 영광을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수한 복음의 진수를 전하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만민을 깨우고 있는 사랑과 권능의 목회자.

1982년, 장년 9명과 어린이 4명이 모여 시작된 만민중앙교회를 성령의 역사 속에 전 세계 1만여 지·협력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시켰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입증하신 것처럼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권능을 통해 성경이 참된 진리임을 확증하고 있다.

2000년부터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에서 대규모 연합 집회 부흥사로 활발하게 사역해 왔으며, 집회 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CNN에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는 220여 개국에 중계됐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지금도 책자, 신문, 방송, 손수건 집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때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뤄 드리시고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12)

만민의 33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는 말씀과 그 말씀을 보장하는 권능으로 이뤄왔습니다.

오늘날 곳곳에 교회도 많고 설교자도 많지만 주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말씀은 너무나 찾기 어렵습니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육의 세상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는 말씀은 극히 드문 현실이지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말씀의 기근으로 주리고 목마른 것입니다(암 8:11).

저는 7년간의 병고 끝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 속에 죽음만 기다리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고쳐주셨고, 주님을 영접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부흥성회마다 열심히 찾아다니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많았고, 목사님들께 질문해 보고 또 유명한 주석들을 찾아 읽어 보아도 그 의미가 속 시원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기를 시작해 7년간 매달렸습니. 시간만 나면 산을 찾아 이른 아침부터 부르짖어 기도했고, 온종일 기도하면서도 시간이 아까워 점심은 거르기 일쑤였지요.

마침내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함 속에 성경 66권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셨고, 이것은 제게 꿀과 송이 꿀보다 달고 생명같이 소중한 보화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이 말씀들을 전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났습니다. 구원과 응답과 축복의 간증들이 전국,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지요. 만민의 역사 속에 성결의 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1.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이룬 제단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혈기, 마음, 간음, 욕심, 교만, 간사함 등 죄악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마음의 할례요 성결을 이루는 것이지요. 죄악을 벗고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에 사랑과 선, 진리로 채워 마음을 변화시킨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고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 없게 보전할 수 있지요(살전 5:23).

제가 초신자 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사람의 성격은 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십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는가,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지” 하는 말도 들어봤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

다” 했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하셨지요. 성격도, 습관도 바꾸고 근본의 죄성도 뽑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어둠을 떠나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을 이룰 것을 반복적으로 명하시지요.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성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죄성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하나 뿌리 뽑게 하시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을 영접해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성결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버려야 할 죄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육체의 일, 육신의 일, 깊은 마음 근본의 악까지 버리는 방법도 낱알이 알려주셨습니다.

또 채워야 할 진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영적인 사랑과 성령의 열매, 팔복 등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지요.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아이들과 청년,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분하는데,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나 성경 지식, 혹은 교회 내 직분으로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죄악을 벗어버렸는지, 진리를 채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에 따라 그 믿음의 단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원수 마귀 사단이 시험을 해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질병과 재앙에서 벗어나고 축복과 응답을 받으며, 더 나아가 능력과 권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지요.

전 세계에서 많은 분이 간증을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녀, 직장, 질병의 문제 등 늘 시험 환난 중에 고통받았는데, 우리 교회를 알고 성결의 복음을 들은 후에는 삶 가운데서 어둠이 물러가고 응답과 축복이 임했다고 하지요.

이처럼 성결의 복음은 마음이 변화돼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법사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지요.

2.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는 말씀'으로 이룬 제단

선한 사람들은 우주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깨우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지요. 그러나 육의 사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6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목·금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사별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말씀을 이룬 제단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두셔서 아담을 타락하게 하셨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성을 체험해 자유의지 가운데 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해 거듭 범죄해도 말로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압니다. 반대로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여겨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섭리와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공의를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지요. 원래 빛과 소리로서 온 우주공간에 가득하게

이처럼 성결의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을 알려주시는 신령한 말씀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변화되게 하는 참 능력의 말씀입니다.

3. '천국을 소망하는 말씀'으로 이룬 제단

1984년, 제 생일을 맞은 주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3월 금식을 주관하시고 그동안 기도해 온 천국에 대해 풀어주시다고 하셨지요. 금식을 마치자 성령의 감동함 속에 놀라운 말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분류돼 있고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무엇이고 사도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이 무엇인지, 날날이 설명해 주셨지요.

또한 다 같은 천국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믿음의 분량(롬 12:3)에 따라 처소가 구분되고 상급과 영광이 달라지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얼굴과 머리, 몸, 의복은 어떠한지, 각 사람의 집은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상급이 주어지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체적으로 풀어주셨지요. 막연히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눈앞에 그려지고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천국을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57개 언어로 발간된 대표 설교집 『십자가의 도』

존재하셨으며, 그 공간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권능과 사랑,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홀로 누리시던 모든 영광과 사랑을 함께 누릴 대상을 얻기로 계획하셨지요. 곧 사람을 지어 이 땅에 경작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경작을 계획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많은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루시퍼의 배신, 아담의 범죄, 노아의 홍수나 소돔 고모라의 심판, 이런 사건들을 겪으실 때마다 고통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인생들이 죄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늘 한탄하며 애통하셔야 했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니까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저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차마 볼 수 없어서 외면하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고, 에녹, 아브라함, 모세 등 영의 자녀들이 나올 때마다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어느 누가 나의 애통한 마음을 알아주고, 어느 누가 내 사랑의 마음을 알아줄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안다는 것은 그 희생과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며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느끼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참으로 알면 죄와 악을 버리고 성결된 마음을 이루는 데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징계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기 위해 기쁨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나오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버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지요.



15개 언어로 발간된 『천국』(상·하)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의 낙원을 보았기에(고후 12:2-4)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을 희생하면서도 힘들다 생각하지 않았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루하루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결의 복음을 들은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한 생생한 소망이 있기에 위엿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취하기보다 '아찌하면 성결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쌓을까.'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33년 전, 만민중앙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세계를 이루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하신 것처럼 이 성결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도 한결같이 큰 권능의 역사로 함께하셨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처럼 일가친척과 이웃, 직장은 물론 세계 곳곳에 성결의 복음이 더욱 창대히 전파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암대로 103, 북성 8/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42)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앙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해례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2)863-9857, 010-2208-5919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이원(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모든 사람이 구원 기사와 표적, 재창조의 항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기사와 표적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죽음 앞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을 100% 믿었으며, 주의 종으로 부르받은 후에는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간구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 기사 '기사(奇事)'란 천기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을 비롯한 모든 물체를 움직이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기상 곧 눈, 비, 바람, 구름, 기온, 기압 등 대기 현상을 조절하는 권능이다.

>> 수련회 때마다 맞춤형 일기의 기사 체험

1983년 8월 1일, 교회 첫 수련회 시 전날 밤부터 쏟아지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성도들과 함께 비를 멈추게 해 달라는 합심 기도를 한 후 이재록 전도사는 누군가 땅을 밟는 순간 비가 멈출 것이니 1층으로 내려가라고 말했다. 성도들이 2층에서 내려와 맨 앞 사람이 땅을 밟는 순간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는 안개와 같은 형태로 바뀌고 천둥과 번개도 그쳤다.

이후 수련회 때마다 기사가 나타나 다가오던 태풍의 진로가 바뀌는가 하면 소멸되기도 하고, 체육대회를 하는 낮 시간에는 사방에서 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려주고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어오기도 했다. 2015년, 올해는 '천상의 바람'으로 역사해 주셔서 영적인 충만함까지 더해졌고, 전국에는 폭염 특보가 발효된 상황이었지만 수련회 장소는 모든 행사에 최적화된 일기 가운데 영의 공간을 체험하며 천국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 희한하고 기이한 무지개와 수많은 잠자리 떼

1998년 5월 15일, 우리 교회 상공에 해를 두른 원형무지개가 출현한 이후 국내외 각종 집회나 행사 시에는 물론, 지교회 상공을 비롯한 곳곳에서 희한한 무지개를 수시로 목격하고 있다. 모양은 해나 달을 두른 원형, 일자형, 대칭형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무지개를 합쳐놓은 듯한 복합적인 형태까지 다양하다. 무지개는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으며(계 4:3), 언약의 증거(창 9:16)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2006년 8월, 전 성도 '만민 하계수련회' 시 출현한 잠자리 떼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해 주변에서 일시에 내려와 성도들의 몸에 사뿐히 내려앉아 행복을 주고 있다. 성경 출애굽기의 메추라기 역사를 체험하며 성도들의 믿음이 더해졌을 뿐 아니라 잠자리가 모기, 나방 등 해충을 박멸해 주고 있다(만민뉴스 694호 참조). 이러한 무지개와 잠자리를 통해 성도들은 영의 공간을 이해하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졌다.

>> 태풍의 위협에서 보호받고 오랜 가뭄이 해결되는 비가 내려

2001년, 필리핀 연합대성회 기간에는 강사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태풍이 몰려가 우기철임에도 마닐라 루네타 공원에서 열린 4일간의 야외 집회가 차질 없이 진행됐다. 2005년에는 허리케인 구스타브에서 보호받게 해 달라는 미국 뉴올리언스에 거주하는 성도의 기도 요청으로 이 목사가 기도해 주자 구스타브가 세력을 잃고 이내 소멸됐다.

한편, 2002년 인도 연합대성회 시에는 우리 교회 선교팀이 타밀라주 주 첸나이 공항에 도착한 날부터 성회 기간 내내 비가 내려 오랜 가뭄이 해결됐다. 또 2009년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시에는 가뭄으로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매우 낮아진 상황에서 언론의 요청을 받고 이 목사가 기도해 준 뒤, 건기임에도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천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2. 표적 '표적'은 주님께서 함께 이루신 일들이나 성령을 힘입어 이뤄진 일들이 보이는 흔적으로 뚜렷이 남겨진 것을 말한다(막 16:17~18). 불치병을 기도로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표적이다.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표적을 나타냈다.

>>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손수건을 통한 희한한 능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기도해 줄 때 희한한 능이 나타났던 것처럼(행 19:11~12)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손수건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1999년 9월에는 기도받은 손수건을 가지고 길태식 목사가 파키스탄에서 집회를 인도했고, 이후 1만여 지·협력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손수건 집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스라엘 유리 칼뫼코프 목사는 러시아의 중환자실에 있는 동생을 위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이수진 목사에게 손수건 기도를 받았는데,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 겨우 생명을 이어가던 동생의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와 며칠 뒤에 퇴원할 수 있었다. 또 필리핀 리디아 고디즈 성도의 외손녀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이희선 목사의 손수건 기도로 걷게 됐고, 케냐 아람 오티에노 오장 성도는 척추가 골절됐으나 정명호 목사의 손수건 기도로 걷고 뛸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전 세계 성도들이 권능의 손수건을 통한 치료와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전국적인 폭염특보에도 천상의 바람으로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잠자리, 만나 보셨나요?”

불임의 고통에서 잉태의 축복을 받은 국내외 성도



“네팔 대지진의 재난 속”



“해외 27개국에서 참석한 ‘2015 만민 하계수련회’”



에 이를 수 있도록 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기도를 받은 뒤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가
종식됐습니다”



>> 불임, 다운증후군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태아의 성별이 바뀌기도

아이가 없던 수념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해 아들을 낳은 것처럼(왕하 4장) 우리 교회에도 개척 때부터 이러한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1993년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때에는 강사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수십 쌍이 한꺼번에 잉태의 축복을 받는다면, 아이를 낳지 못해 냉대반다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김옥자 권사는 이 목사의 기도로 농약 중독을 치료받아 소생함은 물론, 결혼 21년 만에 아들을 얻기도 했다.

또한 이 목사의 기도로 잉태의 축복을 받은 최윤영 권사를 통해 일본 지교회 중 하나인 아마가타만민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됐고, 불임 부부들이 전도돼 잉태의 축복을 받았다. 불임으로 고통받던 국내외 수많은 부부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하는 놀라운 일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만민뉴스 658호 참조).

뿐만 아니라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태아가 이 목사의 기도로 정상으로 태어나는가 하면, 태아의 성별이 바뀌는 재창조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다(만민뉴스 617, 618호 참조).



콩고민주공화국
세바스찬 임페토 광고 주지사

>> 사스, 구제역, 신종플루, 에볼라 등 신종 질병이 퇴치돼

2003년, 전 세계가 사스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사스 증상으로 고통받은 북방의 최금복 집사가 인터넷으로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고 치료된 것을 비롯해 2010년 말에는 구제역 확산으로 긴급 상황에 놓인 춘천만민교회 성도들의 축산농가가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를 받은 뒤 구제역 확산이 멈춤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았다(만민뉴스 464호 참조).

2009년 9월,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시에는 이재록 목사가 현장에서 신종플루 퇴치를 위해 기도해 준 뒤 이스라엘 내 신종플루의 확산이 멈췄다. 2014년 9월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세바스찬 임페토 광고 에쿠아티르 주지사가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기도 요청을 해와 이 목사가 기도해 주자 콩고민주공화국 내 에볼라 바이러스가 종식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드들,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병원에서는 딸이라 했지만
기도받고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도 보호받았습니다!”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아들이었던
제가 기도받고 딸이
됐대요”

재창조의 권능

‘재창조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던 것처럼(창 1:3) 근본의 소리로 이뤄지는 권능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 파손되거나 훼손됐을 때에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다. 즉 죽은 것도 살리며, 땅과 하늘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권능이다.

>> 하나님의 뜻을 좇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고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딤후 2:4). 주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당부하셨다(행 1:8).

이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의 증인 되고자 교회 개척을 준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었다. 곧 하나의 큰 교회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부흥에 부흥을 거듭해 1993년에는 미국 ‘크리스천 월드’ 지에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됐다.

2000년 이후에는 전 세계를 다니며 연합대성회를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순종해 갔고, 반면 사람들이 아무리 강경해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 않으면 가지 않았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CNN을 통해 성회가 전 세계에 보도된 아프리카 우간다를 시작으로 2009년 이스라엘까지 쉴 새 없이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재창조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성결을 이루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 더 나아가 동행하시는 증거가 따르는데 이것이 바로 ‘권능’이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시 62:11)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 자녀들에게 이 권능을 주신다. 만민의 역사 가운데 권능의 역사는 그치지 않았고, 해가 갈수록 더 크게 이뤄졌다. 해외 연합대성회를 이루며 무수한 권능의 역사를 나타냈는데, 그것은 권능의 일부에 불과하다.

2010년 12월 25일 이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재창조의 권능을 갖추도록 인도하셨다. 이제 재창조의 권능이 100% 완성되면 다시금 전 세계 곳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유럽과 아프리카, 이스라엘, 그리고 중국과 중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한국 교계에서도 재창조의 권능으로 확증된 성결의 복음으로 덮어나가면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회’, 시원한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넘쳤어요!”



방송을 통한 세계 선교, 그 꿈을 이루다 GCN 방송, 개국 10주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복음방송 GCN 방송이 개국 10주년을 맞았다. 생명의 말씀과 기도, 간증, 찬양과 각종 교양 및 예능 등 맑고 깨끗한 내용물을 담은 GCN 방송 프로그램은 일반 방송 프로그램과 현격한 차별화를 이루며 170여 개국을 아우르는 커버리지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의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고 있다.



영혼들을 향한 믿음의 행군 이사장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방송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에 뜻을 두고 기도하던 중 2000년 1월 1일 GCN 방송의 전신 '만민TV'를 개국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마지막 때 무수한 영혼을 구원할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라는 확신 가운데 시작한 믿음의 행군이었다.

2000년부터 시작된 해외 생중계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전파됐다. 2004년 GCN(Global Christian Network) 결성, 2005년 10월 10일에는 뉴욕의 공중파 채널인 CH17을 통해 첫 전파를 쏘아 올렸다. 이후 세계 유수 방송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 공중파·위성·케이블 방송 매체를 통해 170여 개국에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사랑에 빛진 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GCN 방송의 직원들은 모두 크리스천이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에 보

답하기 위해 방송 선교사의 마음으로 전 세계 영혼들을 섬기고 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시청자들의 영혼이 잘되고 건강케 할 필수 영양소만 담고자 날마다 기도하며 제작에 힘쓰고 있다. 현재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뿐 아니라 공연, 교양, 어린이 프로그램 등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생명력으로 가득한 다채로운 콘텐츠로 24시간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시청자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행복한 파장 GCN 방송을 통해 영혼이 잘된 시청자들의 응답과 축복의 간증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 이스라엘, 스위스, 러시아, 불가리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서울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고 있다. 또한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을 비롯한 설교와 환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 권능을 체험했다는 간증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게 됐다는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름바꾸 GCN TV

아브라함 빈센트 사장 (인도)



인도에서 120만여 명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아름바꾸 GCN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이재록 박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고 악귀가 물러가고, 갖가지 질병이 치료될 뿐 아니라 불임환자가 잉태하는 등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GCN TV 시청자

존 수팜 성도 (미국)



글로리스타 위성 방송 채널을 돌리다가 GCN 방송을 시청하게 됐습니다.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며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시는 생명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영감 어린 찬양 등 다른 방송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보여 주니 즐겨 시청합니다.

TBN 러시아 방송 시청자

안톤 성도 (우크라이나)



우연히 TBN 러시아 방송을 통해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삶속에서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제 마음이 변화되니 사업에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엔라세 방송 시청자

마리아 헤마 씨에라 산토스 성도 (콜롬비아)



엔라세 방송(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사)을 통해 매주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시청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년간 앓던 중한 질병도 치료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많은 국민이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할릭 바르 _ 이스라엘 크네셋(국회) 부의장



저는 지금도 2009년 9월에 사랑하는 이재록 박사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감사로 서신 '다문화 페스티벌'(이스라엘 연합대성회)을 기억합니다.

전 세계로 생방송 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 집회는 많은 예루살렘 시민에게 기쁨이 됐고,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스라엘에 방문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당시 이스라엘은 수년간 물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록 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비가 내려 갈릴리 호수에 물이 채워졌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가장 좋은 겨울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박사님을 처

음 만났을 때 저는 이스라엘 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승진을 계속해 현재는 국회의원이며 국회부의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박사님을 만나고 만민중앙교회를 알고 난 후 제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이재록 박사님과 만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국민이 격려를 받았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만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마치 한 가족 같아서 저는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매우 기쁘고, 예루살렘과 서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시와 만민중앙교회와의 끈끈한 관계를 계속 증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 I S R A E L ☆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선교의 비전을 품고 무수한 기도를 쌓아온 우리 교회는 2007년 7월 25일,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첫 집회를 시작으로 3년간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기독교계가 힘을 얻고 하나 돼 자발적으로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 엘목회자협의회)을 결성했고, 이들을 주축로 2009년 9월, 예루살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스라엘 연합대성회'가 개최됐다. 이 성회는 22개 방송사를 통해 중계됨으로 이스

라엘은 물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했고,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무수한 사람이 치료받고 응답받아 크게 영광을 돌렸다.

현재 12개 지교회와 20여 개 협력교회, CMTN, TBN 러시아, CNL, 홀리갯 TV, 로드노이 등 방송과 『십자가의 도』, 『깨어라 이스라엘』 등 영어, 러시아어, 히브리어, 아랍어 등으로 번역된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 32개 언어로 발간되고 있는 선교지 '만민뉴스'를 통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깨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고 있다.



**제2도약기
(2000~2009)**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대형 해외성회 시 폭발적 권능의 역사 펼쳐져**

2000년 3월, 전남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바뀌는 창조역사가 나타났다. 그해 7월, CNN에 보도된 '우간다 연합대성회'를 시작으로 일본, 파키스탄(2000), 케냐, 필리핀(2001), 온두라스, 인도(2002), 러시아(2003), 독일, 페루(2004), 콩고민주공화국, 미국(2006)에서 이재록 목사를 감사로 성회를 개최했다. 이슬람교도의 방해가 있었던 파키스탄, 강제개종금지 법령이 공포됐던 인도 등 현실은 녹록치 않았으나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생명 다해 복음을 전했다.

2007년 7월에는 개척 때부터 기도해 온 이스라엘 선교의 비전이 구체화됐다. 나사렛을 시작으로 베들레헴, 예루살렘 등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권능의 역사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기독교계가 힘을 얻고 2009년 9월, 연합대성회를 개최해 메시아니크 유대인들뿐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도 참석하는 성과를 거뒀다(7면 참조).

마침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이 담대히 선포된 것이다.

한편 2004년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설립, 2005년 GCN 방송 개국(6면 참조) 등 기존의 책자와 신문을 통한 문서 선교와 더불어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파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제1도약기
(1982~1999)**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
초대교회 같은 부흥 속에
민족복음화 힘써**

1982년 10월 10일, "오곡이 무르익고 첫서리가 내릴 때에 창립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표어 아래 창립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살아 계신 역사와 더불어 만민기도원, 만민선교원을 설립하고 남녀선교회 등 교회 조직을 정비하니 초대교회처럼 급속히 부흥했다.

1986년 5월, 이재록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은 후에는 전국 곳곳에서 부흥성회 감사로 초청받아 집회를 인도했다.

성도 수가 계속 늘어나 1987년 1월에는 등록교인 3천 명, 1991년 3월에는 1만 명으로 늘어나는 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단과 나라의 꺾박을 통해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발판이 마련됐다.

1991년 7월,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총회를 형성하고, '92 세계 성령화 대성회' 공동대회장,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희년대회' 실무대회장 등 각종 교계 행사에서 일익을 감당하며, 1993년에는 미국 '크리스천 월드'지에서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됐다.

1993년 5월부터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가 개최돼 국내외에서 무수한 사람이 참석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으며, 미국 워싱턴을 시작으로 LA, 탄자니아, 일본, 하와이, 아르헨티나 등 해외 성회가 열려 세계 선교의 기반을 다져갔다.

한편 거듭되는 부흥으로 1996년 6월, 지금의 성전(제5성전)으로 확장 이전했다. 1998년, 1999년 교회적인 세 차례의 큰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케 하시고 교회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갖추게 하셨다. 이후에 펼쳐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통해 모든 것이 축복의 연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